



제13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CJK14)

위규진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임희성 TTA 표준기획부 선임연구원



1. 머리말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CJK IT Standards Meeting)는 2002년 6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제안으로 최초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삼국의 민간표준화기구(한국-TTA, 일본-ARIB, TTC, 중국-CCSA) 간 정보통신 분야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역적, 국제적 표준화 업무의 공동대응 및 표준화 분야 상호 이익과 고른 발전을 위한 표준화 기관 간의 상호 지원을 장려하여 협력강화를 이루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년 제14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는 일본 ARIB와 TTC의 공동주최로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민간표준화기구 대표 및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일본의 NTT, KDDI, 후지츠, 중국의 화웨이, 에릭슨, ZTE 등의 산업체 전문가 등 총 84명이 참여하여

IMT, IoT, 정보보호, 무선전력전송 분야를 중심으로 3국 간 표준화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표준화 기관들과 ITU와의 전자미팅을 통해 5G 및 IoT/M2M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ITU와의 협력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번 14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의 주요이슈 및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5G 및 IoT/M2M 분야에서의 ITU와의 협력 강화

지난해 ITU의 전권회의 시 선출된 ITU 고위 선출직이 금년 취임함에 따라, CJK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가 제안되었다. 특히, ITU의 표준화부문 국장으로 한국의 이재섭 박사가 취임됨에 따라,

TTA는 ITU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여 본 회의 중 ITU-T 뿐만 아니라, ITU-R 국장 등과 CJK의 전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에, 5G 및 IoT/M2M 분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중일 표준화기관과 ITU-R은 현재 ITU-R, 3GPP에서 진행 중인 5G(IMT-2020) 표준화 활동의 일정과 계획이 중요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5G 네트워크 분야의 ITU-T 논의에 참여하여 ITU의 IMT-2020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로 하였다. ITU는 한중일 표준화 회의의 영향력과 국제표준화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지하여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 IoT/M2M 분야에서는 지난해 채택된 oneM2M 규격의 각국 활용현황을 공유하고, 아울러 ITU와 oneM2M과의 신속한 협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3국 표준화 단체가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IoT/M2M 또는 IMT와 연관된 기타 응용 부분의 추가 주파수 할당과 프론트/백 홀 관련 주파수 요건과 이용방안을 ITU와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본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한중일 IT 표준협력 회의의 영향력을 높이고, ITU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였다.

2.2 IMT, NSA(Network and System Architecture, 구 IoT), Information Security, WPT(Wireless Power Transmission) 작업반 회의 결과

금년 IMT 작업반에서는 제22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R WP5D) 국제회의 대응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져, 작업반을 세 개의 특별반(요구조건(requirements), 평가(evaluation), 주파수(spectrum))으로 재구성하여, IMT-2020의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을 논의하였다.

NSA(Network and Service Architecture)

작업반의 경우, IMT-2020의 5G 네트워크 부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업반 명칭을 IoT(Internet of Things including SDN and Smart City)에서 NSA 작업반으로 변경하였다. 본 작업반은 기존 IoT 및 스마트시티, SDN/NFV,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부문을 추가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예정이다.


Information Security 작업반에서는 ITU-T SG17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한중일 간에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IoT 보안 표준에 대해 한중일 공동 기고서로의 제출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WPT 작업반에서는 ITU-R WP1A 국제회의, AWG-19 등의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회의에 이어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선 전력전송 시장 확대를 위해 3국이 공동 개발한 3번째 한중일 무선전력전송 기술 보고서와 삼국의 민간표준화개발 기관에서 표준 개발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표준 및 표준화 과제 목록을 만들어 표준화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는 고유표준의 상호채택 연구를 위한 ‘한중일 WPT 관련 표준 조정(Alignment of WPT standards in CJK)’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3. 맺음말

금년 제14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는 ITU와의 논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 및 공조 체제를 계속적으로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회의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또한, 월 1회 정도의 전자회의를 통하여, 삼국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협력 아이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예정이다.
차기 15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회의는 2016년

7월 또는 8월경, CCSA의 주최로 중국 시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람들이 여러 웹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거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등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남긴 기록.

구매 패턴, 속성, 결제 방법, 구매 이력 내용,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전자 우편(e-mail), 누리집(홈페이지) 방문 기록, 검색어 기록 등이 해당된다. 디지털 발자국을 토대로 기업은 고객 맞춤형 디지털 광고나 판촉을 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발자국을 지워 주는 전문업체도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기술적 장치가 요구된다. ※ 유사어: 디지털 흔적, 디지털 풋프린트